IR Presentation

2021. 8월

SAMSUNG HEAVY INDUSTRIES

INDEX

1. '21년 실적 및 전망

2. 재무구조 개선 계획

3. 재무개선 이후 경영 방향

2분기 매출액 1.7조원, 영업이익 적자 △4,379억원

매 출 : 1.7조원

- 상선 건조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직전 분기 대비 9% 증가

영업이익 : △4,379억원

- 강재가 인상 영향으로 인한 공사손실충당금 반영 △3,720억원
- 고정비 부담에 따른 경상손실 △659억원

(억원)

	전년동기 실적 ('20.2분기)	전기 실적 ('21.1분기)	**당기 실적 ('21.2분기)**	전년동기 대비	전기 대비
매 출 액	16,915	15,746	**17,155**	1.4%	8.9%
영 업 이 익 (이익률)	-7,077 (-41.8%)	-5,068 (-32.2%)	**-4,379 (-25.5%)**	38.1%	13.6%

연간 수주목표 91억불, 매출 6.9조원 수준 전망

수 주 : 91억불

- **조선 71억불** (계획 46억불 대비 54% ↑), **해양 20억불** (계획 32 대비 △38% ↓)

매 출 : 6.9조원

- 연초 계획 7.1조원 대비 감소 사유는 해양프로젝트(Bonga FPSO) 수주 지연 영향

(수주:억불, 매출:조원)

	당초계획	금번전망	1~7월	잔여	계획대비	비 고
수 주	78	91	67 ※ 52척	24	17% ↑	
조 선	(46)	(71)	(67)	(4)	54% ↑	· 컨테이너선 수주 호조 영향
해 양	(32)	(20)	(-)	(20)	△38% ↓	· HI블록, Petrobras PJT 제외
매 출	7.1	6.9	3.3 ※ '21.상반기 누계	3.6	△4% ↓	· 상반기 3.3조원 → 하반기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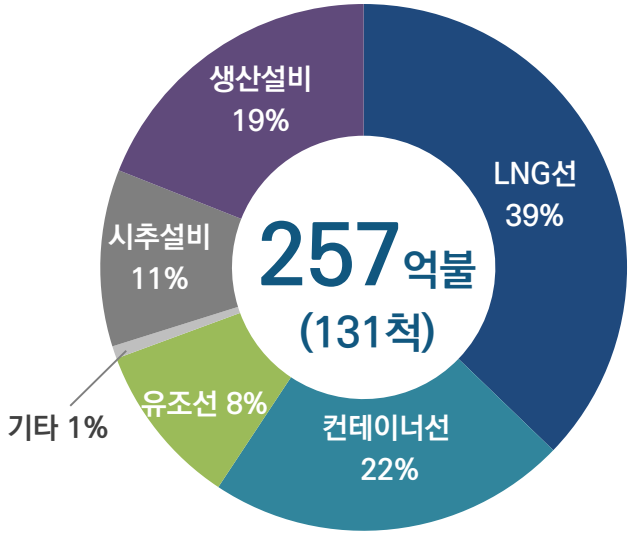
'21년 신규수주는 67억불, 6월말 현재 수주잔고는 257억불

'21년 1~7월 신규수주 : 67억불(52척)

- 컨테이너선 48억불(38척), 탱커 6억불(7척), LNG선 13억불(7척)

'21. 7월말 현재 수주잔고(인도 기준) : 257억불

- 매출기준 수주잔량은 15.5조원으로 '15년 이후 최고 수준 ['16년말 10.0조원 → '18년말 12.3 → '20년말 12.0]
  ※ '21.6月末 기준



	척수	금액(억불)
LNG선	47	100
컨테이너선	43	55
유조선	30	23
기타	3	2
상선	123	180
시추설비	5	28
생산설비	3	49
계	131	257

INDEX

1. '21년 실적 및 전망

2. 재무구조 개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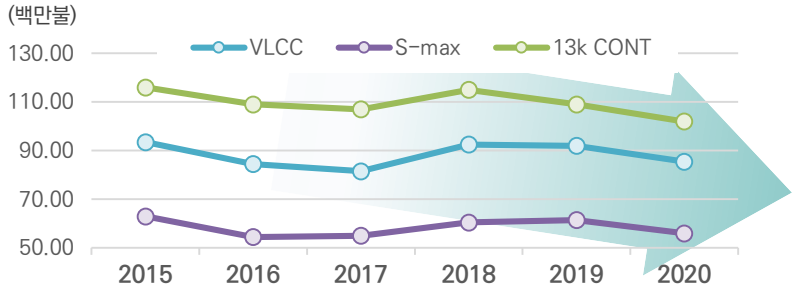
3. 재무개선 이후 경영 방향

조선업 시장환경

'14년 이후 지속된 불황을 지나, 코로나 시기를 변곡점으로 점진적 회복 국면

1, 2차 증자 이후 더딘 시장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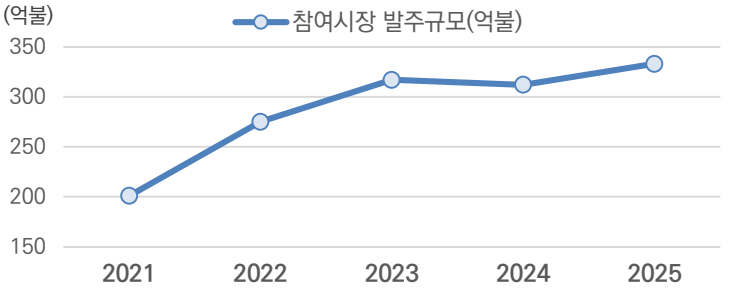
- 증자 이후 시황회복을 기대했으나, **발주 및 선가 회복 답보, 저유가, 강재가 인상** 등 시장회복은 기대 이하
- 시장회복 지연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수요보다 생산CAPA가 큰 조선업 전반의 **'공급과잉 상태'**
- '20년 코로나 발생까지 겹쳐 에너지/물류 수요 감소로 설상가상의 상황



※ 출처 : '21.3월 클락슨 선가 데이터

점진적 회복 기대

- **과잉 공급 CAPA**는 최근 **조선사간 인수합병 등 시장경쟁체제 변화로 조정**되고 있는 중이며,
- **발주수요**는 **친환경·스마트 기술 Trend**와 함께 선박교체 수요가 맞물려 회복중인 상황으로 '23년 이후 **발주규모** 본격 확대 예상
- '21.1분기 컨테이너선의 계약선가 인상 등 감안 **수요 확대에 따른 선박 신조계약가 회복** 기대



※ 출처 : '20.9월 클락슨 Forecast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

현재의 Risk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필요

시장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누적적자로 인해 악화된 재무구조는 경쟁의 큰 걸림돌

- 6년 연속 적자(누적 △4.3조원)로 인해 '21.6월말 부채비율 322%로 증가했으며
  자본총계가 자본금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부분자본잠식 발생이 예상되는 등 재무구조 악화 심화

※ '15~'20년 영업이익 기준

* '18년말 (2차 증자 후) 112%

⇒ 최근 수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RG 발급 차질 등의 **금융권의 여신거래 제약** 발생 가능성 증가

경쟁사 합종연횡, 정책·기술 변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투자 필요

- 친환경/신기술, 스마트 제조, ESG 경영환경 등 **변화하는 Trend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

⇒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도 악화된 재무구조 하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

⇨ **주주 가치 변동없이 자본구조 개선효과가 발생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고,**
재무구조 개선 및 미래 경쟁력 강화 목적의 선제적 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도 추진할 계획

※ 자본잠식 해소

순서는 감자 완료 후 유상증자 추진

유상증자는 약 1.0조원 수준, 무상감자는 5:1 액면가 감액 형태로 추진

유상증자 :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권 평가 대응 및 투자 자금 확보 목적
약 1조원 규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일반공모 방식으로 추진 예정

무상감자 : 발행주식수의 변동이 없어 주주가치 훼손 없는 자본구조 개선 (자본잠식 해소)
5:1 액면가 감액방식으로 추진 (액면가 : 5,000원 → 1,000원)

추진 일정

- '21. 5. 4(화) : 무상감자 및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 이사회
- 6.22(화) : 임시주총 [액면가 5:1 감액의 건, 수권주식수 확대(8억주 → 15억주) , 정관 정비 等]
- 8. 9(월) : 무상감자 절차 완료

※ 이사회 결의 후 유상증자 관련 공시 예정 (8월중)

[목적]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 및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금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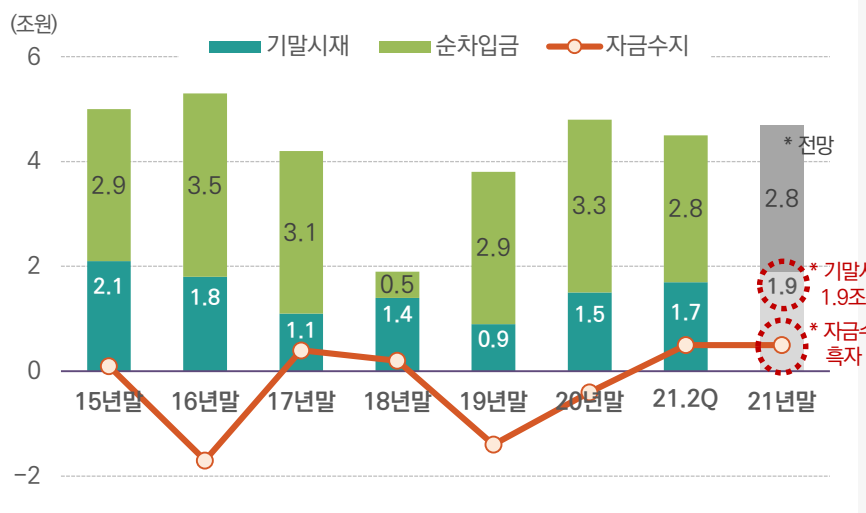
'21.6월말 보유시재 1.7조원, 하반기 자금수지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어 자금 Risk 低

- '21.3월말기준 보유시재 1.2조원 대비 0.5조원 개선 (Arctic LNG선, 에버그린 컨테이너선 선수금 입금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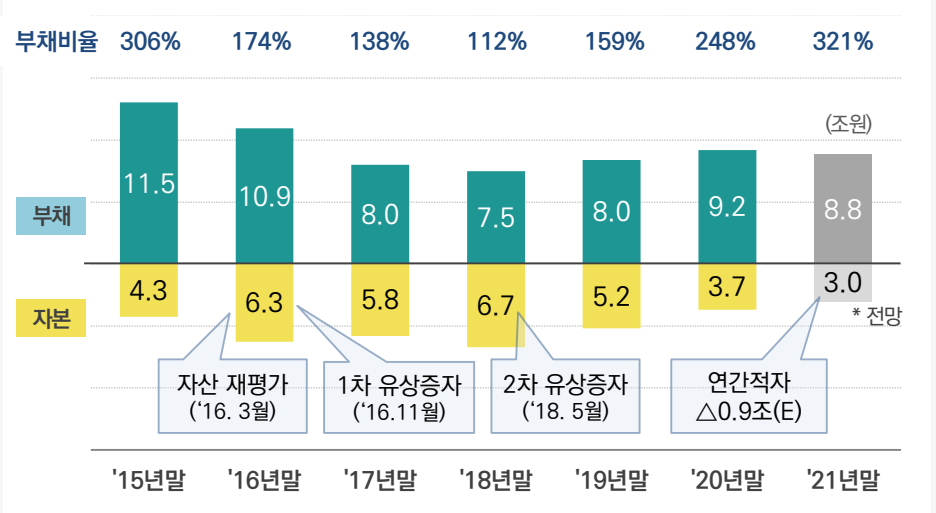
현재 높은 부채비율(322%)과 자본잠식 진입단계임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자본을 보강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 확보를 위함

※ '21.6월말 기준

〈 '15~'21년 자금수지/기말시재(전망) 〉



〈 '15~'21년 부채 비율(전망) 〉



INDEX

1. '21년 실적 및 전망

2. 재무구조 개선 계획

3. **재무개선 이후 경영 방향**

자본잠식이 해소되고, '21년말 부채비율은 200% 하회 전망

'21년말 자본잠식률 : 개선前 14% → 개선後 0%

- 5:1 무상감자로 자본총계는 유지되나, 납입자본금 감소 및 자본잉여금 증가로 자본잠식 해소

'21년말 부채비율 (추정) : 321% → 198%

- 유상증자 확보자금 및 기존시재를 활용하여 차입금 1.5조원 상환 시 △123%p 축소 가능할 전망

	'20년말	'21년말			
		현 전망	감자 완료시	증자 완료시	차입금 상환시
자산 총계	12.9	11.9	11.9	12.9	11.4
부채 총계	9.2	9.1	9.1	9.1	7.6
자본 총계	3.7	2.8	2.8	3.8	3.8
납입자본금	3.1	3.1	0.6	0.9	0.9
자본/이익 잉여금 등	0.6	△0.3	2.2	2.9	2.9
부채비율(%)	**248%**	**321%**	**321%**	**238%**	**198%**
기말시재	1.5	1.9	1.9	2.9	1.4
총차입금	4.8	4.7	4.7	4.7	3.2
순차입금	3.3	2.8	2.8	1.8	1.8
(자본잠식률)	(-)	(14%)	(-)	(-)	(-)

차입금 1.5조 상환

차입금 상환 후에도 기말시재 1.4조 수준

미래를 위한 투자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기술개발 및 ESG 경영 등을 위해 투자

친환경 기술개발

–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선박 및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

· 국제해사기구(IMO)는
CO_2배출량을 '30년 40%, '50년 7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규제 시행

– 당사는 친환경 선박 뿐만 아니라
* CO2 포집, 연료절감 등
차세대 연료기술, 스마트십 솔루션 등
* 연료전지, 수소, 암모니아 등 * 자율운항 등
신기술을 개발/확보 중

※ LNG실증설비

스마트 야드 구축

– IoT 기반으로 AI, Big Data를 활용한
스마트 생산/설계/Work를 축으로 한
'Smart Factory' 구축 중

· 스마트 생산

: DT/AI를 통한 공정 시뮬레이션 및
* Data Technology
최적화 시스템 개발,
용접 및 라벨링 자동화 장비 개발 등

· 스마트 설계

: RPA 기술을 적용한 설계 생산성 향상,
* Robotic Process Automation
3D 모델링 기반의 Paperless 구축 등

· 스마트 워크

: 금속 3D 프린팅을 통한 건조공법 혁신,
QR코드 및 RFID 활용한 자재 관리 등

ESG 경영강화

– 기존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탈피하여,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경영

– 환경오염 방지, 안전한 작업장 조성,
탄소중립 등을 위한 투자가 진행중

· 친환경 연료로 교체(등유,LPG → LNG)

· 도장공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 노후공장, 시설, 조도 개선 등 작업여건 개선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3L 도장공장

급변하는 시장의 Needs를 철저히 준비하여 미래 경쟁력 확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자구적 노력

금번 개선된 재무구조가 지속되도록
고정비 감축, 수주 확대, 사업 스펙트럼 확대 등 자구적 노력 병행 추진

고정비 감축을 위한 인력 및 자산 효율화

- 중장기 사업규모에 적합한 인력구조 재편 및 고정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산청연수원, 사원아파트 등 비생산자산을 지속적으로 매각 진행 중

'21년 계획(78억) 및 전망(91억불)을 상회하는 신규수주 추진

- '21년 전망 수주 목표 91억불(잔여 40억불)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 영업활동 전개
- 외부 조선소를 활용한 Half-Ship 건조공법 등을 통해 원가 개선 및 추가수주 여건 마련

해외 Operation 등 사업 스펙트럼 확대

- 러시아 Zvezda 사업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잠재적 프로젝트 추가 수주를 확보하고 러시아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Operation 확대 검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공사 참여

조선·해양 외의 부문에서 매출 및 수익 확대로 고정비 부담 경감

중공업 보유역량(자동용접, 모듈공법)을 기반으로 반도체공장 물량 확대 추진 중

- 평택공장 건설은 최근 반도체 수급난으로 공장 건설 납기 단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사는 조선, 해양플랜트 수행 경험으로 축적한 **자동 용접기술**과, 외부작업장에서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 및 탑재하는 **모듈공법**으로 공장건설 납기 단축에 기여가 가능함을 인정받아 반도체공장 건설 수주에 성공

- '21년초에 수주한 2차 파일럿 공사(V2라인 약 600억원, 건축+설비 복합공종)를 성공적으로 수행 후 지속적으로 반도체 건설공사 물량을 확대 수주해 나갈 계획
  ※ '20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소액의 1차 파일럿 물량(P2라인)은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

〈 전자 평택공장 생산시설〉

〈 중공업 차별화 제조 역량〉

무재해 : **重工業 안전관리 기법 현장 적용**
※ 국제적 IOC, NOC 공사시 안전 Standard 적용

완벽품질 : **전문 인력 및 선진화 시스템 접목**
※ 국제인증 용접검사원 상주 및 현장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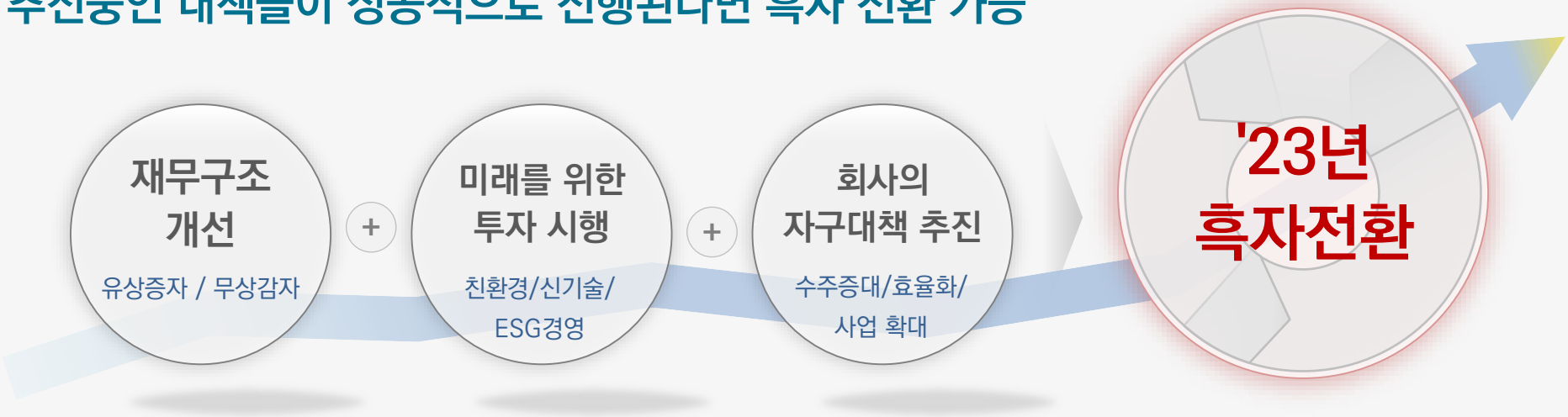
원가절감 : **新공법 발굴 및 생산 기술 고도화**
※ 배관용접 100% 자동화 확대

납기단축 : **역량 내재화 및 최적 공법 추진**
※ 거제 조선소 內 단일 작업장 구축

중장기 회사 경영 방향

재무구조 개선 및 기술투자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여 '23년 흑자 전환 후 꾸준히 적정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 운영

'21년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부하 영향으로 '22년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해양프로젝트 수주 지연으로, '22년 매출은 '21년 대비 하락 전망되어 고정비 부담 가중 영향으로 흑자 전환은 어려운 상황

그러나, '23년부터는 '21년 수주 증가 및 금번 발표한 대책들의 효과가 발생하며 추진중인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흑자 전환 가능